金時習 晩年期의 內面意識에 관한 小考

- 關東日錄·溟洲日錄의 詩들을 중심으로 -

김 윤 섭*

1. 序論
2. 再演되는 悲愴의 旅路와 그 底邊
3. 回顧的 抒情과 儒家的 功名意識의 陰影
4. 現實意識과 超脫意識의 間隙
5. 結論

1. 序論

김시습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종교·사상·문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저술의 범위가 넓고 작품의 분량이 방대하기도 하거니와, 儒·佛·道를 두루 섭렵한 탁월한 知的 역량과 비상한 종교적 통찰력 그리고 섬세한 예술적 감수성이 다채롭게 교직된 다방면의 저작들을 충분히 소화하여 만족할 만한 연구 성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시 분야만 하더라도, 2200여수에 달하는 작품들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총론적으로나 각론적으로 보다 진척된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그의 내면의식 및 그에 따른 정신경계를 온전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종교나 철학적 측면의 연구와 더불어, 문학적 측면에서 그의 사유와 정서가 다양한 修辭的 표현 속에 깃들어 있는 詩作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함께 더욱 유기적으로 수행되고 종합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김시습의 晩年期 詩들을 수록한 『關東日錄』과 『溟州日錄』의 작품들을 범주로 하여 그의 내면의식의 諸樣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주지하다시피 김시습은 24세 무렵 관서지방을 기점으로 하여 관동지방을 거쳐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기나긴 유랑의 행각을 펼치게 된다. 당시의 행적과 소회를 담은 詩作들을 모아 놓은 것이 『四遊錄』이다. 이후로 30대의 金鰲山 칩거시기를 지나 47세의 나이로 환속하고 재혼했던 부인 安氏와 死別한 뒤 다시 49세에 관동으로 유랑을 떠난다. 그러니까 25세 즈음에 관동지방을 돌아본 이후 24년 만에 같은 곳으로 다시 유랑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20대의 관동 유랑 체험이 담긴 『遊關東錄』과 더불어, 50대의 자취를 담은 『關東日錄』과 『溟州日錄』은 그의 행적 및 사유와 정서의 變轉 양상을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기도 하다. 두 시기의 작품집들에 대한 상세한 비교 논의는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關東日錄』과 『溟州日錄』에 실려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의 사유와 정서에 따른 내면의식과 정신경계의 推移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문학 방면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 현황에 대해 잠시 언급하자면, 김시습의 내면 정신세계에 대한 고찰은 일찍이 작가론적 관점에서의 개괄적인 연구들과 더불어 『金鰲新話』를 위주로 한 산문 연구들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그 중심적 토대가 되는 것은 역시 儒·佛·道 思想, 그 중에도 특히 유교적 현실주의 가치관이나 불교적 세계관 및 인생관 등에 관한 것이었다.[1] 또한 한시 연구에 있어서도 유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 혹은 그에 따른 민본사상 애민정신 역사의식 등이 자주 거론되어왔고, 불교적 인생관에 따른 정신세계나 문예의식에 관한 탐구 성과들도 산출되고 있다.[2] 이와 같은 연구들은 물론 김

1) 김시습 연구 초기에 鄭炳昱이나 鄭鉒東 등에 의해 儒佛 일치 내지 조화의 사상적 성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이래(鄭炳昱, 1988 「金時習 硏究」 『한국 고전의 재인식』, 기린원 ; 鄭鉒東, 1983[재판] 『梅月堂 金時習 硏究』, 민족문화사 참조), 유교나 불교 사상과 관련된 문학론적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산문 연구의 중심이 되었던 『金鰲新話』와 관련하여 다수의 성과들이 산출되었다.(구체적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아울러 사상이나 문학의 변별적 범주를 막론하고, 金知見, 1989 「沙門 雪岑의 華嚴과 禪의 세계」 『매월당 그 문학과 사상』,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 安東濬, 1994 『김시습 문학사상 연구 : 소설의 사상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 崔貴默, 2001 『김시습의 사상과 글쓰기』, 소명출판사 ; 沈慶昊, 2003 『김시습 평전』, 돌베개 등 여러 연구들이 김시습의 사상과 관련하여 그의 내면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적잖은 滋養分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자면, 李雲九, 1975 「매월당의 애민의식과 시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1집, 한국한문학회 ; 閔丙秀, 1978 「매월당의 시세계」 『인문논총』 3집(서울대) 등을 필두로 하여, 이후 다수의 성과들이 도출되었고, 金成圭, 1990 『15世紀 後半 士大夫 文學의 몇가지 傾向 : 成俔·金宗直·金時習의 現實主義的 詩文學』, 成均館大 박사논문 ; 金蓮洙, 1997 『매월당의 사상과 시문학』, 경인문화사 ; 金銀洙, 1995 『梅月堂 詩 硏究』, 전남대 박사논문 등의 연구로 이어졌다. 아울러 불교 관련 시문학 연구로는 徐珪部, 1991 『朝鮮前期 禪家文學의 硏究 : 雪岑 普雨 休靜을 중심으로』, 高麗大 博士論文 ; 林俊成, 2003 『梅月堂 金時習의 佛敎詩 硏究』, 漢陽大 博士論文 ; 拙稿, 2008 『金時習 佛敎詩에 관한 硏究』, 高麗大 博士論文 등의 논문이 간헐적으로 산출되었다.

시습의 내면 정신의 全貌와 實相을 해명함에 있어 각기 나름의 유용한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 상의 난점이나 제약들로 말미암아 단편적으로 한정된 논의에 머물거나 소략한 경우가 적지 않아, 아직은 여러 면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심도 높은 연구가 집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四遊錄』 등 前期의 詩作들에 비해 집중 연구가 부족한 그의 만년기 시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을 통해, 그의 내면의식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술한바 여기에서 분류적으로 내세우는 국면의 내용들이 김시습 한시 전반의 측면에서 볼 때 특별히 새로운 것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러한 작품들 속의 含意들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탐구함과 더불어, 만년에 이른 김시습의 시작품들 속에 여전히 혼재하는 多層多岐의 사유와 정서의 제양상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詳論함으로써, 그의 정신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작은 뒷받침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2. 再演되는 悲愴의 旅路와 그 底邊

김시습은 47세 되던 1481년에 환속한 이후 재혼한 부인과의 사별과 폐비윤씨 사건에 따른 정국의 난맥상 등으로 인해 깊은 좌절과 환멸을 맛보고 다시 관동으로 유랑 길에 오르게 된다. 환속하여 사회에 정착함으로써 현실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름의 뜻을 펴보고자 했지만, 안팎의 사정은 악화되고 급기야는 속세에 안착하고자 했던 마지막 의욕도 상실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미 知天命을 앞둔 나이에 다시 모든 것을 등지고 방랑길에 오르는 비애의 심정이 만년에 남긴 『關東日錄』이나 『溟州日錄』의 詩作들 곳곳에 스며있다.

애끊는 심정으로 꽃을 보건대 자유롭지 못하거늘
꽃 그림자 시내에 비치는 모습을 어찌 견디리오.
가지마다엔 두견이 피 토한 듯 진달래 만발한데
개개의 온갖 물물마다 나그네 근심 더해주네.
아름다운 날 새 소리는 객의 한을 더하고
연기 띤 산 빛은 이별의 시름 길게 하네.

턱 괴고 우두커니 서서 장초가를 부르나니
한 조각 봄 회포에 백발이 다해가네.

腸斷看花不自由　那堪花影映溪流
枝枝便是杜鵑血　箇箇更饒遊子愁
媚日鳥聲增客恨　帶煙山色長離憂
搘頤佇立歌萇楚[3]　一段春懷儘白頭[4]

북쪽의 절은 쓸쓸하고 띠집은 기울었는데,
승려는 이마를 찡그리고 앉아 턱을 괴었네.
살구꽃은 벌써 시들고 배꽃이 다음인데,
보리 처음 이삭 트니 밀 이삭도 따라 트네.
옛 버들의 갓 난 꾀꼬리는 아리땁게 속삭이는 듯,
짧은 처마의 둥지 속 제비는 교묘히 속이려는 듯.
타향의 물물 마다 한스런 맘 이끌지 않는 것 없지만,
하물며 다시 깊은 밤 두견새 소릴 듣고서이랴.

北寺蕭條茅屋欹　居僧蹙額坐支頤
杏花已謝梨花次　大麥初胚小麥隨
古柳乳鶯嬌似語　短簷巢燕巧如欺
異鄕無物非牽恨　況復夜深聽子規[5]

첫 번째 시에서는 산속을 걷다가 문득 갓길에 난 꽃을 바라보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이즈음의 김시습에게는 도처에서 보고 듣는 각기의 물물들이 온통 憂愁와 悔恨의 감정을 촉발하는 매개체일 따름이다. "객으로 떠도는 곳곳마다 마음 상하지 않음이 없고"[6] "눈 속에 웃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한이 될"[7] 뿐인 것이다. 두 번째 시에서는 고적하고 소슬한 사찰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가로운 주변 정경을 묘사해나가다가 결구에 이르러선 역시 새 울음소리를 모티브로 '恨'의 정서가 한껏

3) 萇楚歌는 『詩經』「國風」 十三, 檜風의 <隰有萇楚>를 말한다. 政事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賦稅만 중하여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니, 초목인 장초처럼 無知하여 근심 없음만 같지 못하다는 의미를 차용한 것이다. 『국역매월당집』 권2, 328면 참조.
4) 金時習, 『梅月堂集』 권13, 「山路看花」(韓國文集叢刊 13, 288-289면)
5) 위의 책 권13, 「草舍」(위의 책, 290면)
6) 위의 책 권13, 「客遊」(위의 책, 291면) "客遊無處不傷神"
7) 위의 책 권13, 「書懷」(위의 책, 283면) "眼底笑歡都是恨"

고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듯 異鄕을 떠돌며 느끼는 통절한 비애와 회한의 원인은 결국 "이 몸과 세상이 서로 어긋남이 심하여"[8] "일신에 근심과 어려움이 더하고 모든 일이 다 어그러져버린"[9] 까닭이다.

그리고 그런 '어긋남'과 '어그러짐'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독백대로 "내 재주가 세상과 서로 맞지 않고"[10] "내 삶은 어지러운 세상에 맞지 않는다."[11]는 데에 있다. 김시습은 마치 자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의 떠다니는 쑥대 신세 같다"[12]고 여기며 깊은 소외감에 젖는다.

> 어디가 마음 둘 곳인지 알지 못하겠나니
> 만수천산에 다만 이 몸뿐이네.
> 고관이 온다 해도 지체하지 않으리니
> 궁액은 예삿일이라 많이 노할 것도 없다네.
> 고개 위의 흰 구름은 절로 기뻐 좋아하고
> 못에 떨어진 밝은 달은 참 거짓이 없어라.
> 세월의 흘러감은 고금이 이 같을 뿐이니
> 나아가고 물러남이 命에 달렸지 어찌 사람에 달렸으랴.
>
> 不知何處可頤神　萬水千山只此身
> 軒冕倘來非欲遲　阨窮常事莫多嗔
> 白雲在嶺自怡悅　明月落潭無贋眞
> 荏苒古今如是耳　行藏由命豈由人[13]

혹여 고관이 찾아온들 맞아볼 생각도 없고 이런저런 액궁들이야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니 굳이 크게 화를 낼 것도 없다. 그저 흰 구름 밝은 달처럼 무심히 自然 속에 머물며 出處行藏의 운수를 천명의 뜻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 제목이 '분을 풀다'인 점인 감안하면, 이러한 언술들은 애써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해보는 일종의 자기 위안의 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위의 시들을 통해

8) 위의 책 권13, 「身世」(위의 책, 283면) "身世相違甚"
9) 위의 책 권13, 「自解」(위의 책, 295면) "一身嬰患難 萬事惣乖張"
10) 위의 책 권13, 「昭陽引」(위의 책, 282면) "我才與世不相當"
11) 위의 책 권13, 「因興謾成」(위의 책, 282면) 넷째 수 "吾生不合在風塵"
12) 위의 책 권13, 「老病」(위의 책, 282면) "天地一飄蓬"
13) 위의 책 권13, 「釋憤」(위의 책, 295면)

보았듯이, 김시습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과의 괴리·격절·소외감의 심연은, 결국 그가 나이 오십이 다 되도록 자아와 외부세계 간의 二分的 대립 갈등 구조의 첨예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당시 김시습의 시들 속에 빈번히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하나는 老衰와 病苦에 대한 자탄이다.

엎어지고 뒤집힘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이런 타향에 오게 될 줄 어찌 알았으랴.
바닷가에서 길이 나그네 되어
늘그막에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여행길 오래라 단지엔 술도 없고
슬픔이 많으니 귀밑머리엔 서리만 허옇네.
고향 산의 오늘 밤 밝은 달은
옛 그대로 松堂에 비치고 있겠지.

翻覆不可預　焉知來此鄕
海濱長作客　老去一霑裳
旅久樽無綠　悲多鬢有霜
故山今夜月　依舊照松堂[14]

他鄕의 바닷가에서 눈물로 옷깃을 적시는 나그네의 처연한 심회를 그대로 드러낸 시이다. 더욱이 그의 傷心을 더하게 하는 것은 이제는 귀밑머리에 서리가 허연 늙고 초췌한 자신의 몰골이다. 당시의 작품들 중에는 노쇠와 병고로 인한 슬픔과 번민의 感傷을 즉물적인 표현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내용들이 다수 보인다.[15] 김시습은 그러한 온갖 번민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술과 잠에 빠져 소일하곤 한다.

바닷가에서 정월 초이레 날을 만나니
푸른 산과 백발이 함께 하였네.
질화로에 국수와 나무을 삶고
구리 냄비엔 나무줄기를 끓이네.
金勝을 누가 장차 보내주리오

14) 위의 책 권14, 「月」 둘째 수 (위의 책, 307면)
15) 예를 들면 권14의 「髮白」, 「耳重」, 「目羞」, 「牙蚪」 같은 시들의 경우이다.

서리꽃은 귀밑에 내려앉았네.
아득히 세상일을 바라보자니
취해서 깨지 않으니만 못하여라.

海上逢人日　青山白髮幷
瓦爐燒麪菜　銅銚煮蔬莖
金勝誰將送　霜華鬢上零
悠悠看世事　不如醉無醒[16]

시의 제목인 '人日'은 음력 정월 초이레를 말하는 것이니, 아직은 스산한 겨울 끝자락을 異鄕의 바닷가에서 보내며 느끼는 우수어린 심회가 잘 나타나 있다. '金勝'은 곧 '花勝'을 뜻하며 人日에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머리 장식물로서 일종의 세시풍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金勝을 보내줄 이 없다는 것은 初老의 나이에 마땅한 벼슬자리 하나 없이 외진 바닷가에서 홀로 봄을 맞이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그는 이러한 참담한 심경을 세속의 범부들과 다름없이 거친 감정의 격발을 통해 수시로 드러내면서 음주나 수면 등에 의지하여 소일한다. 당시의 여타 시들에서도 보듯이,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수심 속에 취했다가 다시 깨"거나[17] "만사에 무심하여 잠잘 때가 유쾌하니"[18] "사람을 대해도 말도 안하고 잠만 탐내"[19]는가 하면, "취한 기분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잠 맛도 다만 잠깐 사이일 뿐"[20]이라며 탄식하는 등 매우 자조적이고 자기방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과의 대립 갈등 구조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한 채, 늙고 병듦을 한탄하며 비애와 우수의 심연 속에서 노출하고 있는 지극히 일탈적이고 파행적인 모습들은, 이전까지 김시습이 걸어온 굴곡과 파란의 인생행로를 감안할 때 나름의 개연성을 지니는듯하면서도 다소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일련의 행태들은 기성의 사회적 관습이나 常軌에 얽매이지 않는 소위 '放達不羈'의 분방하고 격정적이면서도 올곧고 섬세한 그의 生來的 기질에 비추어보자면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또한 용인하기 힘든 혼탁하고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울분과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사실 현실사회에의 부적응 내지

16) 위의 책 권14, 「人日」(위의 책, 306면)
17) 위의 책 권13, 「感懷」 둘째 수 (위의 책, 291면) "事事不如意 愁邊醉復醒"
18) 위의 책 권13, 「患眼」(위의 책, 283면) "萬事無心快睡時"
19) 위의 책 권13, 「東鄰櫟亭」(위의 책, 290면) "對人不語常耽睡"
20) 위의 책 권14, 「敍悶」(위의 책, 314면) 첫째 수 "醉鄕如瞬息 睡味只須臾"

부조화에 따른 좌절감이나, 노쇠 및 병고 등 사사로운 역경으로 인한 번민의 감정을 토로하는 등속의 내용 그 자체는,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人之常情의 茶飯事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 그가 보여 왔던 儒·佛·道의 종교나 사상들에 대한 학문적·수행적 편력과 심취의 치열한 궤적들을 감안하면, 더욱이 이미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 정신적 원숙기에 이르렀음을 생각하면, 그러한 모습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한 당혹감을 자아내기도 한다.

비탄에 젖어 폭음으로 소일하며 내뱉는 넋두리들, 또한 늙음을 비관하고 病苦를 근심하며 읊조리는 凡夫의 신세 한탄조와 같은 얘기들은, 儒家的 입장에서도 그렇거니와[21] 특히 佛敎的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심오한 사상이나 문학적 메시지를 담은 불교 관련 저작들을 다수 남긴 그 사람이 맞는지 의문스러운 기분이 들 정도이다.

그가 20대 초에 유랑을 시작한 이래 사찰들을 탐방하며 남긴 격조 높은 불교관련 詩文들과 수행의 자취들, 譯經 諺解 사업에 초청될 만큼 탁월한 식견과 많은 승려들이 추존할 정도였던 고원한 禪的 정신경계의 면면들, 그리고 특히 40대에 저술한 불교관련 名著들 등을 감안하면, 50대에 접어든 김시습의 자가당착에 가까운 奇行들은 당시의 참담한 情況을 고려하더라도 너무나 상호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새삼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關東日錄』이나 『溟州日錄』에서는 초기 『四遊錄』 소재 불교 관련 시들 속에서 볼 수 있었던 불교적 깨달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도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난날 誠之라는 자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人天眼目』에 관해 강론하면서, "보리 열반의 길은 멀지 않으니 참예 공부도 반나절의 일일 뿐이라"[22] 고 갈파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禪的 구극의 경지에 대한 자부심의 일단을 엿보이던 김시습은 어디에 있는가. 승려들이 찾아와 道에 대해 물었을 때, "부디 담박한 마음을 보존하여 하루아침에 깨우치기를 기약할지니"[23]라며 의연히 젊은 도반들을 訓導하던 김시습의 모습은 결국 허상이었던가.

그러나 이런 의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도출해내기란 역시 쉽지 않다. 儒·佛·道의 종교와 사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정체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多岐한 면모를 보여 왔던 김시습은 자신의 삶에 대한 처절한 독백과도 같은 『關東日錄』과 『溟州日錄』의 작품들 속에서도 실로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다. 그런 다양한

21) 그는 『關東日錄』 속에 「養性」, 「窮理」, 「正心」, 「誠意」, 「修己」, 「治人」 등 유가적 심성 수양의 도리와 관련된 제목과 내용의 詩들을 남기고 있다.

22) 위의 책 권3, 「誠之來學人天眼目」(위의 책, 133면) "菩提涅槃路非遙 參介工夫在半朝"

23) 위의 책 권3, 「敏上人同諸伴來問道」(위의 책, 131면) "願保淡泊心 期取一朝惺"

표정과 몸짓들을 읽어가면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게 될 것이다.

3. 回顧的 抒情과 儒家的 功名意識의 陰影

앞 장에서 김시습이 만년에 다시 관동 유랑을 떠난 이후 지은 시들 중에 悲歎에 젖은 感傷的 情調의 작품들 몇 편을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現世와는 맞지 않는 "평생 불우한 인간"[24]이라는 쓰디쓴 자의식의 심연 속을 浮游한다. 『關東日錄』과 『溟州日錄』에는 지난 삶의 자취를 회고하는 내용의 시들이 여러 편 보이는데, 그의 마음을 선점하고 있는 삶의 주된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가늠케 한다.

여덟 달만에 남의 말 알아들었고
세 돌 되면서 글을 지을 수 있었네.
비와 꽃을 읊어 시구를 얻었고
소리와 눈물 손으로 가리켜 분별했네.
높은 정승이 집안에 왕림하였고
여러 종중에서 옛 서책을 보내주었네.
내가 벼슬하게 되는 날에는
경술로써 밝은 임금 보좌하려 했었네.

八朔解他語　三朞能綴文
雨花吟得句　聲淚手摩分
上相臨庭宇　諸宗貺典墳
期余就仕日　經術佐明君[25]

한스러운 건 조종의 제사가 어그러짐이요
마음에 걸리는 건 지난 날 기대를 저버림이네.
黃河水 맑게 되길 바란지 오래고

24) 위의 책 권1, 「古吞」(위의 책, 93면) "萬里乾坤闊 平生落魄人"
25) 위의 책 권14, 「敍悶」 셋째 수(위의 책, 314면)

학이 전하는 조칙 오는 것도 더디었네.
이 몸과 세상이 어긋남이 심한데
세월은 어느덧 하염없이 흘러갔네.
하늘이 나를 가엽게 여긴다면
반드시 막힌 운수 트일 때가 있으리라.

可恨顚宗祀　關心負素期
河淸俟望久　鶴詔下來遲
身世乖違甚　年光荏苒移
天公如憫我　必有否傾[26]時[27]

'답답한 마음을 펴본다'는 제목의 여섯 수로 된 이 시는 회고적 서정을 바탕으로 한 김시습의 自傳的 발자취를 생생히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회한어린 시선을 들어 아련한 유년기로부터 지금까지 파란과 굴곡으로 점철된 삶의 궤적들을 마치 한 편의 영상처럼 차례로 떠올려 본다. 어려서부터 비상한 재주로 가문 안팎의 주목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분위기 속에서, 그는 經術을 익혀 '立身揚名'을 도모하고 임금을 보좌하여 '經世濟民'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儒者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의 이러한 儒者로서의 면모는 과거를 추억하다 돌아온 현재의 의식 속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마지막 수의 언술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宗祀의 어그러짐을 한스러워하고 지난날의 기대를 저버림에 마음이 구애되는 김시습의 모습에서, 萬有의 空性을 온전히 체득하고 세속적 욕구와 가치를 초월한 無碍自在의 불교적 정신경계를 찾아보긴 어렵다. 결국 이는 김시습의 뿌리 깊은 儒家的 現實主義와 社會的 參與意志에 바탕을 둔 功名意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시의 시들 속에는 그러한 공명의식을 드러낸 작품들이 다수 보인다.

---

26) 『周易』의 天地否(否卦) 중에 "上九는 否塞한 것이 기울어짐이니 앞서는 막히지만 뒤에는 기쁘도다. 象傳에 왈, 막힘이 다하면 기울어진다. 어찌 길다 하겠는가.(上九, 傾否, 先否, 後喜. 象曰, 否終則傾, 何可長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必有否傾時'라 한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天運도 변하기 마련이니, 막혔던 운수가 기울어 풀리고 트일 때가 있으리라는 뜻이다. 겉으로는 일말의 기대나 희망을 나타낸 듯도 하지만, 역시 스스로를 위안하는 의미가 짙다. 비슷한 심경과 표현을 권13의 「自歎」이라는 시에서 볼 수 있다. 김시습은 "오십이 되도록 자식도 없으니 여생이 가련하다"고 後嗣가 없음에 연연하여 탄식하면서, "어찌 운수의 통함과 막힘을 점치리오. 반드시 사람과 하늘을 원망할 것도 아니라네.(五十已無子 餘生眞可憐 何須占泰否 不必怨人天)"라며 애써 자신을 위무하고 있다. 앞장에서 다루었던 권13 「분을 풀다」(「釋憤」)의 情調와도 상통한다.

27) 위의 책 권14, 「敍悶」 여섯째 수(위의 책, 314면)

푸른 산 띠풀 집 속에서
백발과 근심을 함께 하네.
사람을 보아도 항상 말도 안하고
눈물을 닦으며 이룬 것 없음을 탄식하네.
장대한 뜻은 해마다 줄어가고
노년의 나이는 날마다 기울어가네.
묻건대 오늘날 아는 몇 사람 중에
나같이 功名이 적은 이가 있을까.

靑山茅屋裏　白髮與愁幷
對人常不語　抆淚歎無成
壯志年年減　頹齡日日傾
問今知幾輩　似我少功名[28)]

늙어가는 게 그다지 싫진 않지만
헛되이 살아온 건 실로 부끄럽네.
공자도 後生을 두려워했고
굴원도 先賢을 본받았었네.
한 세상 비록 우환은 없다 해도
몸 마치는 일이 다만 근심이네.
들은 것도 별로 없이 이제 나이 오십이니
그만 해야지, 필경 누구를 원망하리오.

老去政不厭　徒生眞可羞
宣尼猶後畏　屈子法前脩
一世雖無患　終身只可憂
寡聞今五十　已矣竟誰尤[29)]

푸른 산 띠풀 집에서 타인들과 담을 쌓은 채, "이룬 것 없는" 자신의 초라한 처지에 대해 눈물어린 感傷을 토로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처음 품었던 장려한 뜻은 쇠잔해져가고, 어느덧 자신의 功名이 적음에 대해 푸념이나 늘어놓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28) 위의 책 권14,「夜吟」첫째 수(위의 책, 308면)
29) 위의 책 권14,「夜吟」둘째 수(위의 책, 308면)

두 번째 시에서는 늙어가는 게 싫진 않다고 애써 자위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孔子나 屈原 같은 인물들을 상기하며 오십이 다 되도록 "헛되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자탄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오십의 나이를 스스로 가련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그 의미와 정서가 전혀 다르게 표출된 다음과 같은 시도 비교하여 참고할 만하다.

> 나이가 이미 천명을 알 때가 되니
> 여생이 가련하기만 하네.
> 세상의 속정은 가볍기가 물결 같은데
> 나의 도는 곧기가 거문고 줄 같다네.
> 이득을 보면 오직 義를 생각하고
> 편안함에 거하면 다만 천명을 즐긴다네.
> 물러나 은거한 안온한 곳에서
> 물욕이 흔들어도 내 흥겨울 뿐이네.
>
> 年已知天命　餘生足可憐
> 世情輕似浪　吾道直如絃
> 見得唯思義　居安只樂天
> 退藏寬穩處　物撓我陶然[30]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러 여생을 걱정하면서도, 경망스런 세상의 俗情과는 다른 자신의 道의 올곧음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갓되이 義를 쫓고 편안함 속에 천명을 즐기며 물욕이 자신을 흔들어도 동요됨 없이 흥취에 젖는 모습은, 스스로를 경계하고자 하는 다짐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앞서 비탄과 회한 속을 허우적대던 모습과는 너무도 판이하다.

이런 상반된 김시습의 행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게 되겠거니와, 범부의 넋두리나 다름없는 감상적인 면모도, 천명을 즐기며 흥취에 젖는 自適의 면모도, 모두가 김시습이라는 인간 속에 자리한 꾸밈없는 내면의식의 發露라는 사실 또한 인정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시습은 만년에 이르도록 立身揚名에의 의지의 끈을 쉽사리 놓지 못했지만,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功名' 또는 '功業'에의 의지는 일방의 개인적 욕구나 이기적 집착의 산물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다음의 시는 그의 功名意識에 따른 마음의 자세를 잘 드러내고 있다.

---

30) 위의 책 권13, 「自警」(위의 책, 298면)

남아로 태어나 이름 못 이루고 몸은 이미 늙어
머리카락은 빠지고 백발이 되니 그저 마음만 조급하네.
같은 시기의 친구들은 모두 높이 날아올라
앞에선 경계서고 뒤에선 호위하며 장안 거리를 나다니네.
그들이 내게 읍하고 이르길, 그대는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공명을 위해선 반드시 일찍 벼슬에 몸담아야 한다 하네.
내 비록 머리를 끄덕이긴 했으나 마음으론 허용치 않았으니
장부가 자연히 출세할 곳이 있기 마련일진대
어찌 구구하게 담 넘는 짓을 하여
이윤이나 여상으로 하여금 빛을 잃게 하리오.
한번 웃고 구름 보며 외로이 휘파람 불다가
몸 기울여 비껴보니 산봉우리만 우뚝 솟아있네.

男兒生不成名身已老　頭童髮白徒草草
同時朋伴盡飛騰　前邏後擁長安道
揖我謂我汝何愚　功名必須致身早
余雖點頭心不許　丈夫自有出身處
安用屑屑踰垣墻　遂使伊呂前無光
一笑望雲發孤嘯　側身睥睨山陡峭[31]

대장부 남아로 태어나 "成名"하지 못하고 백발에 이른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은 위에서 거듭 살펴보았던 바이다. 비슷한 시기에 수학했던 知己들은 높이 출세하여 호위하는 수하들을 거느리고 보란 듯이 장안을 나다니니, 자신의 처지는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그들은 김시습의 고지식함을 힐난하며, 功名을 이루기 위해선 일찍 벼슬을 얻어 현실사회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며 은근히 부아를 돋운다. 그러나 강직한 성품의 김시습에게 正道가 아닌 방법으로 벼슬을 탐하는 짓 따위는 기질적으로 맞을 리가 없다.

그가 현실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안착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불우한 개인환경과 부조리한 정치상황 그리고 유가적 가치 실현에의 의지에만 일방적으로 함몰될 수 없는 그의 종교나 사상적 다변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거니와, 이와 같이 고지식하고 강직한 성품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의식이 강한 김시습은 일찍부터 그런 원인들을 반추해보며 자신이 숙명적으로 立身揚

31) 위의 책 권14, 「我不如行」(위의 책, 303면)

名하기 어려우리라는 사실을 직감해오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 그러한 자각의 음울한 그림자가 그의 晩年期 詩作들 속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 밤이 얼마나 되었는가. 밤이 새벽이 되어가니
> 뭇별들은 빛살을 거두고 북두성만 남았네.
> 향을 피워 예배하고 수없이 축원하나니
> 바라건대 하늘이시여, 조속히 명철한 사람 내시어서
> 笙鏞의 節奏와 黼黻의 文彩로 성스러운 임금을 도와
> 앉아서도 사방의 나라가 요순시대와 같게 하소서.
> 교외엔 기린이 있고 언덕엔 봉황이 있어
> 뛰어난 이들을 망라하고 어진 이들을 치우침 없이 내세우면,
> 잔 구름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하늘엔 흔적도 없게 되며
> 여우와 살쾡이는 자취를 감추고 늑대와 호랑이도 달아날 것이거늘,
> 어찌하여 홀로 깊은 산중만 지키면서
> 돌아가 지존을 뵙지 않는가.
>
> 夜如何其夜嚮晨　衆星收芒餘北辰
> 焚香禮拜祝無算　願天早生明哲人
> 笙鏞黼黻佐聖主　坐令四海如虞唐
> 郊有麒麟兮岡有鳳凰　網羅豪俊兮立賢無方
> 纖雲四散兮天無痕　狐貍屛跡兮豺虎奔
> 胡爲獨守深山中　盍歸乎來朝至尊[32)]

먼 타향 깊은 산 중의 奧地에서 긴 밤을 잠 못 이루며 經國濟世의 큰 뜻에 동참하지 못함을 탄식하는 내용이다. 몸은 산중에 있지만 마음은 온통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3구에서 '생용'은 국가제례에 사용되는 악기이고 '보불'은 임금의 예복에 수놓는 무늬장식을 뜻하니, 이는 결국 충직하고 명철한 신하들이 현명한 군주를 보필하여 국가의 大計를 도모하고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기를 축원하는 김시습의 충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구절이다. 아울러 다음 구절의 "立賢無方"은 현명한 인재를 내세움에 있어 親疎나 貴賤 등에 구애됨 없이 公平無私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33)] 김시습이 治國의 합당한 방도가 바르게 구현되기

32) 위의 책 권14, 「夜如何」(위의 책, 304면)
33) 『孟子』 離婁 下에 "탕왕은 중도를 지키시어 현명한 이를 벼슬자리에 세움에 있어 그 부류를 따지지 않으셨다.(湯 執中 立賢無方)"고 하였다.

를 간구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밤하늘 북두성을 바라보며 임금과 나라를 생각하다가 문득 고개를 떨구면, 심심산중에서 밤을 지새우는 初老의 유랑객의 자취만이 허허로울 뿐이다. 당장이라도 돌아가 지존을 참례하고 보필하지 못하는 신세를 떠올리며, 김시습은 그저 悲感에 찬 독백만을 詩句에 담아내고 있다.

4. 現實意識과 超脫意識의 間隙

지금까지 김시습의 『關東日錄』과 『溟州日錄』에 수록된 만년의 시들 중에서, 첫째로 세상과 괴리되고 격절된 자신의 처지를 통감하며 자기 방기적인 비탄과 회한의 심연 속을 浮游하는 모습들을 일별해보고, 둘째로 그러한 비탄과 회한의 近因이라 할 수 있는 儒家的 現實主義 가치관에 따른 功名意識이 그의 회고적 서정성이 짙은 시들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같은 모습들은 씨줄과 날줄처럼 그의 다른 면모들과 때로는 부합되고 때로는 상치되는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詩文集 속에 뒤얽혀 있다. 그런 다양한 면모들을 詩作들을 통해 실상 그대로 보다 온전히 조명하고 분석함으로써, 김시습이라는 한 인간의 내면적 정체성을 해명함에 있어 작은 단서나마 덧보태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취지이다.

본장에서 다루게 될 몇몇 작품 속 김시습의 모습은 앞서의 그것들과는 완연하게 다르다.

> 작은 다리 푸른 물결의 중심을 횡단하니,
> 사람들은 산 아지랑이 푸른 안개 깊은 곳으로 건너가네.
> 양쪽 언덕 이끼 꽃은 비 맞아 윤나는데,
> 일천 봉의 가을빛은 구름에 의지하여 침노하네.
> 시냇물 소리는 無生의 말을 쳐내는데,
> 솔 소리는 태고의 거문고를 탄주하네.
> 여기에서 精舍 까지는 멀지 않으리니,
> 잔나비 울고 달 밝은 그 곳이 東林이라네.
>
> 小橋橫斷碧波心　人渡浮嵐翠靄深
> 兩岸蘚花經雨潤　千峯秋色倚雲侵

溪聲打出無生話　松韻彈成太古琴
此去精廬應不遠　猿啼月白是東林[34)]

푸른 시내 물결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외나무다리와 주변의 정경에 대한 감흥을 읊은 시이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푸른 산 아지랑이와 안개 속으로 아득히 젖어들어 가는듯한 고즈넉한 분위기를 한 폭의 그림처럼 소묘하고 있다. 양쪽 언덕의 이끼 꽃들은 빗방울에 아롱져 윤이 흐르고, 고개 들어 바라본 일천 봉 멧부리에 드리워진 가을빛은 구름과 어우러지며 凋落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관조적인 시선으로 자연정경을 玩賞하며 그 소회를 격조 높은 詩語로 엮어내고 있는 것이다.

시냇물 소리에서 無生의 禪語를 듣고, 솔가지 소리에서 太古의 거문고 소리를 감지하는 모습은 순례하는 求道者의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시냇물 소리라는 순수본연의 자연적 音律이 청정한 마음 안에 깃들 때, 그것이 곧 참된 道를 설하는 "無生話" 이며 佛音이자 法語에 다름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자연과의 교감과 융화를 바탕으로 한 김시습의 고원한 불교적 정신경계의 일단이 심미적 감수성의 프리즘을 통해 詩的으로 표출되고 있다.[35)] 2장에서 언급한 바, "객으로 떠도는 곳곳마다 마음 상하지 않음이 없고", "눈 속에 웃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한이 될" 뿐이라고 했던 哀傷과 悔恨의 情調와는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이다.

이러한 관조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경향성은 아무래도 세속적 名利로부터의 超脫과 隱逸을 希求하고 讚美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외진 산 안개 낀 물결에 조각배를 띠우나니
가파른 절벽 층층의 벼랑은 객의 수심을 씻어주네.
어부의 피리가락 바람에 실려 소리가 가냘픈데
강 물결은 해를 담아 그 그림자 아득해라.
금린어는 미끼 따라 줄에 끌려 나오고
색동오리는 물결 따라 마음대로 떠다니네.
이제부터 名利의 일은 모두 내던져버리고
밝은 달 낚싯대 하나로 물결마루 차지하리.

孤山煙浪泛扁舟　峭壁層崖蕩客愁
漁笛帶風聲嫋嫋　江波涵日影悠悠

34) 위의 책 권13, 「獨木橋」(위의 책, 287면)
35) 拙稿, 2008『金時習 佛敎詩에 관한 硏究』,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70-71면 참조.

錦鱗因餌牽絲出　彩鴨隨波得意浮
從此盡抛名利事　一竿明月占波頭[36]

역시 유랑 길에 마주한 자연 경물들을 잔잔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더듬어 음미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개의 물물들이 나그네의 수심을 더하기는커녕, 오히려 맑게 씻어주는 매개물이 된다. 가파른 절벽이나 층층의 벼랑 같은 시원스런 풍광들을 통해 마음의 정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한가로운 어부의 피리가락과 강물에 비친 아득한 해 그림자를 바라보며 김시습은 온갖 세속적 名利에 대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밝은 달 아래 낚싯대 하나로 자연 속에 은일하려는 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은일과 초탈의 삶을 동경하고 예찬하는 내용의 당시 시들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가 7수로 된 연작시 '산에 살며 산중의 도인에게 주다'이다.

푸른 산 깊은 곳 그대로 집을 삼으니
소나무 회나무 빽빽한데 길 하나 비끼어 있네.
가파른 절벽 구름은 스쳐가고 이끼는 무리 지었는데
넓은 연못에 바람 세차니 물결이 꽃무늬를 이루네.
살아가며 사람들의 엿봄을 허락지 않으니
소금과 장인들 어찌 저자의 것을 갖다 먹으리오.
절로 다함없는 맑은 복이 있나니
名利도 여기에선 그저 하찮을 뿐이네.

碧山深處卽爲家　松檜森森一徑斜
峭壁雲摩苔作暈　泓潭風激浪成花
生涯不許人間詗　鹽酪寧從村市賒
自有無窮淸福在　利名到此儘幺麼[37]

푸른 산 깊은 곳을 집 삼아 隱逸 속에 逍遙 自在하는 '隱者' 김시습의 모습이다.

외부인의 犯接을 거부한 채 철저한 칩거 속에 自適하며, 김시습은 그 가운데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누릴만한 청정한 복이 깃들어 있음을 체감한다. 그러한 은일과 자적의 삶은, "남아로서 끝내 이룬 것 없으니 헛되이 살다 또 헛되이 죽게 되리라"

36) 위의 책 권13, 「孤山」(위의 책, 287-288면)
37) 위의 책 권13, 「山居贈山中道人」 七首 중 둘째 수(위의 책, 296면)

고 자학하며 “쓸쓸히 깊은 산중에 외로이 날 알아주는 이 없네”[38]라고 탄식하는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오직 임금과 나라를 위해 입신양명에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한 열망의 실현을 위해 현실사회에 몸담게 되었을 때 맞닥뜨리기 마련인 온갖 名利에 따른 세속적 雜事들을, 김시습의 강직한 性情으로는 감당키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그에게 方外의 자연 속 隱逸의 삶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일종의 도피처나 탈출구가 되기도 했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궁극적으로 귀착해야 할 마음의 本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山居贈山中道人」과 더불어 중국 唐末 五代 시기의 승려 貫休의 ‘鍾陵山居’ 24수에 화운한 「和鍾陵山居詩」 24수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해볼만한 연작시이다. 『續東文選』에 그 중 두 편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수를 음미해본다.

> 四美를 해마다 도처에서 겸했으니
> 시내 빛과 산색이 쑥대 발에 비치네.
> 약초밭에 사슴이 노닌다고 어찌 마냥 화를 내리오.
> 차 끓이는 부뚜막에 버섯이 나도 또한 꺼리지 않네.
> 만사를 덜고 나니 가난함이 낙이요
> 일신이 한가하니 늙어감도 싫지 않네.
> 웃으며 세속의 유유함을 바라보자니
> 너무 거칠지 않으면 너무 가늘어라.
>
> 四美年年到處兼　溪光山色映蓬簾
> 藥園鹿戲何曾惱　茶竈菌生亦不嫌
> 萬事省來貧是樂　一身閑了老非厭
> 笑看塵世悠悠者　無太鹿疏便太纖[39]

四美는 곧 좋은 시절(良辰), 아름다운 경치(美景), 완상하는 마음(賞心), 즐거운 일(樂事) 등 네 가지를 의미한다.[40] 그런 것들을 해마다 도처에서 함께 겸한다 하니, 비록 옛 사람의 말을 차용한 것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다소 어렵다 해도, 아무튼 상당히 밝고 여유로운 逍遙와 自樂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약초밭에 사슴들이 노닐어도 굳이 쫓을 생각도 안하고 차 끓이는 부뚜막에 버섯 따위가 돋

38) 위의 책 권14, 「喜聞鳥聲而感」(위의 책, 307면) “男兒竟無成 徒生又徒死…悄深山中 踽踽無知己”
39) 위의 책 권13, 「和鍾陵山居詩」 다섯째 수(위의 책, 300면)
40) 전관수, 2002 『漢詩語大辭典』, 336면 참조.

아도 그저 보아 넘기는 모습엔 그런 여유가 넘쳐난다. 또한 貧窮과 老病으로 한탄하는 모습 보다는, 한가로운 마음으로 老年에 순응하며 각박하고 속 좁은 세속인들의 근성과 행태를 대범히 웃어넘기는 達觀의 자세가 완연하다.

아울러 김시습은 "늙음을 물리치는 일은 방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 치 마음에 累 없으면 이것이 바로 신선의 배가 된다"[41]고 일갈하며, 본래 靈明한 마음의 청정함과 자재로움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어설픈 관념의 일시적 토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警戒하는 의미와 더불어, 지금껏 쌓아온 학문적·종교적 통찰과 자각을 통해 김시습의 내면 깊은 곳에 굳게 자리한 신념의 발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自樂과 達觀의 情調는 이 작품이 승려의 시를 和韻한 데에도 기인하겠지만, 김시습의 내면적 지향의식의 일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만하다.

지둔이 산중에서 초당을 지었더니
허순이 찾아와서 침상을 같이 했네.
雲松에의 취미는 한가할수록 고아해지고
雪竹에의 정회는 늙어갈수록 굳세어지네.
검은 책상엔 방외의 책 빌어 뒤적이고
오리 향로엔 해남의 향 손수 꽂았다네.
禪定을 파한 뒤에 기량 없다 하지 말지니
맑은 물 밝은 등불로 古皇에 제사하네.

支遁山中結草堂　許詢來訪共匡床
雲松趣味閑來雅　雪竹襟懷老去剛
烏几倩繙方外語　鴨爐親揷海南香
休言定罷無伎倆　淸水明燈祀古皇[42]

먼저 중국 東晋 때의 승려 지둔과 名士 허순이 산수 간에 은거하며 道樂을 나누던 모습을 떠올린 것은, 그들을 통해 隱逸과 求道를 지향하는 인간들 간의 참된 交感의 전형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시습은 雲松이나 雪竹 같은 산수 간의 풍물을 벗 삼고 거울삼아 마음을 추스른다. 또한 때로는 독서에 몰두하거나 향을 피우며 禪定에 드는 佛子로서의 면모 또한 잃지 않고 있다. 맑은 물 밝은 등불 아래

41) 위의 시 넷째 수, "却老不從方外得 寸心無累是仙槎"
42) 위의 책 권13, 「山居贈山中道人」(위의 책, 296면)

古皇에 제사하는 모습에는, 모두 번뇌를 떨쳐버리고 下心하고자 하는 김시습의 겸허하고 외경스러운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이상 몇 편의 시들을 통해 김시습이 세속의 名利라는 질곡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융화 속에 초탈과 은일 그리고 소요와 자재의 삶을 동경하고 찬미하며 또한 구가하는 모습들을 소략하게나마 일별해보았다. 그러나 2장이나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양상도 그의 내면의식의 다양한 면면들 중의 일부임을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위에서도 검토해보았듯이 그가 뛰어난 종교적 직관과 통찰력으로 불교적 각성의 고도한 경지에 이르러, 자연의 物象들을 초월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성리학적 수양을 통해 불교와의 조화를 모색하며 마음의 근원적 본성을 탐색하고 그것을 體化하고자 했음을 역시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超脫과 自樂의 경계를 지향하고 享受하는 그의 내면의식은, 生來的 품성과 더불어 그와 같은 비상한 종교·사상적 정신역량에 기인하는 바 크다. 다만 그러한 超脫과 自樂의 정신경계가 어느 정도 심원한 것이었는지, 자신이 통찰한 마음의 본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체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나 이론의 여지도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에 따른 하나의 사례로서, 당시의 몇몇 시들 속에는 보이는 '形役'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구절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形役'이란 마음이나 정신이 육체나 물질에 부림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작은 창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 빈방에서는 저절로 흰빛이 생기네.
> 은자는 홀로 하늘을 노니니
> 만 가지 경계에 마음 자취 없는데
> 누가 혼돈의 형체에다가
> 마침 일곱 구멍을 뚫어놓았던가.
> 내 성품 본래 영명하거늘
> 만유 간에 분분히 어그러지게 된다네.
> 끝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 괴로이 육신에 부림을 당하지 말지니.
>
> 小窓如漆黑　虛室自生白
> 幽人獨天遊　萬境無心迹

誰將混沌形　偶爾疏七鑿
我性本靈明　萬有紛舛錯
莫將有涯生　苦爲形所役[43]

『莊子』,의「人間世」편에 나오는 '虛室生白'의 구절과 「應帝王」편에 보이는 유명한 '渾沌의 寓話' 등을 빌어 와, 일체의 분별과 욕망을 초월한 대자유인의 無心과 작위적이고 물질적인 굴레에 얽매이는 속인의 어리석음을 대비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내용이다. 김시습은 여기서도 내 마음의 본성이 본래 靈明한데 만유 간의 분별과 작위의 분분함으로 인해 어그러짐이 생기게 됨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힘들게 육신의 구속이나 부림을 당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같은 '形役'에의 언급은 일찍이 20대 후반에 스승인 峻上人에게 지어 올렸던 연작시 「贈峻上人」의 시들 중에 비슷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즉 "마음에 일정한 모양이 없으니 어찌 육신의 부림을 당할 것이며, 도에는 본래 이름이 없으니 어찌 임의로 이루리오."[44]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스승의 드높은 경지를 찬탄함과 더불어, 道에 대한 자신의 통찰과 각성의 일단을 내보이는 중의적인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溟州日錄』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시는 위의 양상들과는 거리가 있다.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서
새봄에 벌써 정월보름이네.
집안이 가난하여 꿀로 만든 경단도 없고
저장해둔 것 없어 나물 뿌리를 먹는다네.
온갖 일들 끝내 행하기 어렵고
서로 다름을 말하기 쉽지 않네.
괴로이 육신에 부림을 당하여
자리를 끌고 따뜻한 남쪽으로 향하네.

冉冉年光轉　新春已上元
家貧無蜜餌　貯乏吃蔬根
百事終難做　千差未易論
苦爲形所役　拖席向南暄[45]

43) 위의 책 권14,「暗室」(위의 책, 315면)
44) 위의 책 권3,「贈峻上人」二十首 중 其八(위의 책, 296면) "心非有像奚形役 道本無名豈假成"

세월의 빠른 흐름에 어느덧 새봄이 되고 정월보름이 되었는데, 가난한 삶에 변변한 먹을거리도 없이 만사는 틀어지고, 추위에 육신의 괴로움은 어쩔 수 없어 따뜻한 남쪽으로 옮겨가는 초췌한 유랑객의 자화상이다. 김시습은 또 다른 시에서도 "어쩌다 육신에 부림을 당하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붙어살게 되었는지"라며 정처 없이 타향의 이곳저곳에 寓居하는 자신의 처지를 푸념하면서, "신세의 미끄러짐은 심하고 功名은 어정거리다 더디어진" 현실을 한탄한다.[46] '形役'을 경계하는 자신의 내면적 지향의식과 실제 현실의 모습과는 괴리와 간극이 있음을 보게 된다.

결국 육신의 구속을 벗어나 마음의 본성을 체득하고 초월적 대자유의 정신경계 속에 소요자재 하고자 하는 내면적 지향의식은, 현존하는 자아와 그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특히 자신이 추구하는 유가적 가치관에 따른 공명의식 및 참여의지와 극명하게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괴리에 따른 間隙과 隔絶의 자의식은 다음과 같은 시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 산중의 오랜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데
> 산속의 사람은 평상에 의지해 읊조리네.
> 약수와 봉래 까지는 길이 아득히 멀고
> 높은 성 황금 궁궐로는 구름이 망망하네.
> 인간 세상은 험난하여 머물러 살기 어렵고
> 천상은 이끌어줄 이 없어 바라만 볼 뿐이네.
> 높이 솟은 계수나무엔 짐승들만 오르내리는데
> 그대는 어찌하여 푸른 벼랑 곁에 머물며
> 돌아가 성군과 충신들을 만나지 않는가.
>
> 山中老木參天長　山中人兮吟倚床
> 弱水蓬萊路迢遞　層城金闕雲蒼茫
> 人間嶮巇難爲居　天上無媒徒瞻望
> 桂樹偃蹇獸騰倚　君胡爲兮蒼崖傍
> 盍歸來乎遭明良[47]

약수와 봉래로 상징되는 초월계로의 길은 아득히 멀게 느껴지고, 높은 성 황금

45) 위의 책 권14, 「山中上元」(위의 책, 312면)
46) 위의 책 권14, 「偶然縱筆成二十五韻」(위의 책, 311면) "奈爲形所役 何故寓於斯…身世蹉跎甚 功名蹭蹬遲"
47) 위의 책 권14, 「山中人」(위의 책, 318면)

궁궐로 비유되는 현실계로의 꿈도 망망히 요원하기만 하다. 그는 초월적 이상경계인 天上으로의 飛翔을 希求하지만 그러한 갈망이 온전히 구현되기 어려움을 자각한다. 그렇게 되기엔 그의 내면 또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지상의 현실계를 향한 자아로서의 존재 및 지향의식이 너무도 견고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계에 着根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엔, 또한 김시습의 눈에 비친 세속의 실상은 너무나 험난하고 혼탁하다. 올려보아도 굽어보아도 자신이 안주할 곳이 없음을 통감하는 김시습의 음울한 독백만이 깊은 산중에 잦아든다.

5. 結論

본고에서는 김시습 만년기의 내면의식을 考究함에 있어, 그가 五十을 앞둔 나이에 관동으로 유랑을 재개한 이후의 자취가 담긴 『關東日錄』과 『溟州日錄』의 詩作들을 범주로 삼고, 먼저 작품 내용상 크게 세 가지 주요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현실사회에 끝내 정착하지 못한 채, 세상과 괴리되고 隔絶된 자신의 처지를 통감하며 悲歎과 悔恨의 심연 속을 浮游하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또다시 먼 타향을 홀로 떠도는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의 관련 작품들 속에서, 김시습은 무절제하고 자기방기적인 感傷을 빈번히 발산하는 등 극심한 일탈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드러낸다.

둘째로, 儒家的 現實主義 가치관에 따른 功名意識과 사회적 참여의지에의 뿌리깊은 열망이 당시의 회고적이고 퇴영적인 분위기의 시들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한 현실적 가치에의 집착과 그에 따른 좌절감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작품들은, 세속으로부터의 초탈을 希求하는 경향의 작품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셋째로, 앞서 언급했듯이 그가 일체의 세속적 집착을 벗어나 超脫과 隱逸의 삶을 동경하고 山水自然 속의 逍遙自在를 염원하며, 나아가 유연한 자세로 그러한 삶을 구가하는 모습이 드러난 작품들을, 대별적인 경향의 한 축으로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각 국면들을 통해 나타난 다채로운 내면의식과 정서의 편린들은 연계적으로나 당위적으로 이해하고 수긍할 만한 여지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 적잖이 상호 모순되는 이율배반적인 요소들을 내포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이삼십 대도 아닌 50대의 만년기 몇 해에 지어진 詩作들 속에도 여전히 이러한 多岐한 면모들이 혼재되어있다는 사실은, 특히 그의 삶의 궤적이나 정신·사상적 편력의 자취를 탐색해본 연구자에겐 상당한 당혹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과연 어느 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인지, 어느 곳 어디쯤에 그의 정신적 정체성의 좌표를 설정해야할지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사상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던 이른바 '心儒跡佛'의 문제 같은 것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탁월한 사상적 통찰이나 심오한 종교적 직관의 정신경계를 엿볼 수 있는 많은 저술과 작품들 속의 모습들은 실제 그의 인간적 면모나 행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복잡다기한 작품들의 내용을 분류적으로 해명함과 아울러, 상호 연관성을 지니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모순되고 상치되는 측면들을 부각시켜 그 양상들을 보다 면밀히 조명함으로써, 당시의 김시습의 내면의식과 정신경계의 全貌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에 一助가 되게 하고자 하였다.

김시습이 궁극적으로 儒者였다거나 佛子였다거나 혹은 覺者였다거나 方外者였다거나 또는 좌우로 달통한 사람이었다거나 모순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거나 하는 변별적 논의는 유효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適實하지는 못한 듯하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사상을 담은 저작들이나 다양한 주제의 산문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시들을 보다 미시적으로 정밀히 살피는 동시에 거시적으로 종합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그의 정신세계의 전모와 실상에 좀 더 가까워져 가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논의 범주 내의 여타 주요작품이나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주제어 : 晩年期 內面意識, 關東日錄·溟州日錄, 悲歎과 悔恨, 儒家的 功名意識, 超脫과 隱逸

투고일(2010. 11. 15), **심사시작일**(2010. 11. 16), **심사완료일**(2010. 12. 10)

<Abstract>

A Study on *Kim Si-seup's* Inner Consciousness in His Late Years

Focused on『*Gwandongilrok*』,『*Myeongjuilrok*』

Kim, Yun-Sub *

This study discussed *Kim Si-seup's* inner consciousness in his late years with focus on the contents of the poems in『*Gwandongilrok*』and『*Myeongjuilrok*』which were divided into three major parts. The two books above provide a look into his life after he restarted wandering around Gwandong region at the age of around fifty.

First, the study examined how much grief and regret he felt over himself who could not lead a settled life, living away from society. In the works lamenting over his fate to wander around, he repeatedly demonstrate extreme departures from his usual style, frequently expressing reckless and self-defensive feelings.

Second, the study explored how his ambition to distinguish himself based on the practical values of Confucianism and his strong aspiration to participate in society are reflected in his reminiscent, retrogressive poems at the time. The works which explicitly demonstrate his obsession to practical values and the attendant frustration starkly contrast with the works telling of his desire to transcend the mundane world.

Third, the study examined the works mentioned above, one of the major three parts, that show how much he yearned for an aloof and reclusive life free from all of secular obsessions, wished to roam the nation freely and sought to lead such life.

Various aspects of his inner consciousness and sentiments shown though each of the three parts is understandable when considering what he experienced. However,

* Lecturer, Korea University.

it can not be denied that they contain quite contradictory elements. This study tried to help to grasp *Kim Si-seup's* inner consciousness and sentiments by classifying and explaining the inconsistent contents of the poems he wrote in his late years and shedding light on the parts that are related but also have contradictory aspects.

Key Words : Inner consciousness, 『*Gwandongilrok*』, 『*Myeongjuilrok*』, grief and regret, ambition to distinguish himself based on Confucianism, aloof and reclusive